음운론의 측면에서 본 한글 맞춤법

이 병 건

한글 맞춤법을 논할 때 우선 언급해야 할 문제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할 당시에 이미 음소(phoneme)의 개념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k]음과 [g]음을 따로 표기하지 않고 다같이 'ㄱ'으로 나타냈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말에서 하나의 음소에 속하는 변이음들은 한데 묶어 하나의 철자로 처리했던 것이다. [l]과 [r]을 'ㄹ'이 대표하며 [t]와 [d]를 구분하지 않고 'ㄷ'으로 나타낸 것도 마찬가지 예가 된다.

한글 맞춤법은 생성음운론에서 말하는 기저표시(underlying representation)에 매우 가까운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음운론의 기저표시에서는 allomorph간의 관계를 규명할 수가 있는데 한글 맞춤법에 그것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 예가 그것을 보여 준다.

(1) a. /kulm+ta/ '굶다'
kum+ta 자음탈락 규칙
[kumta]
b. /kulm+ə/ '굶어'
[kulmə]

(1a)와 (1b)에서 어간 '굶'은 [kum]과 [kulm]으로 각각 소리나서 표면형에는 차이가 있지만 맞춤법상으로는 동일하다. 곧 이것은 두 allomorph가 하나의 morpheme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한글 맞춤법 표기 중에는 기저표시에 규칙이 여러 개 적용된 결과를 보여 주는 것도 있다. 다음을 보자.

(2) /kut+hi+ə/ '굳혀'
$kut^h+i+ə$ 기식화 규칙
$ku\check{c}^h+i+ə$ 구개음화 규칙
$ku\check{c}^h+y+ə$ 활음형성 규칙
$ku\check{c}^h+ə$ y-삭제 규칙
$[ku\check{c}^hə]$

위의 도출과정을 살펴 볼 때 '굳혀'라는 철자는 활음형성규칙(glide formation)이 이미 적용되어 있는 단계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한글 맞춤법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받침 체계가 매우 이상적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어간과 어근의 구분이 명백히 나타난다. 예를 들어, '입어'를 '이버'로 표기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입'이 어근을 나타낼 뿐 아니라 '입' 다음에 형태소 경계 '+'가 있음을 표시하고 있어 음운론적 기저표시로는 /ip+ə/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근을 반영하는 철자법을 가진 말로는 한글이 세계에서 유일한 경우로 생각된다. 일본어의 경우 철

자체계에 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근표시를 한자에 의존하고 있다. '가다'의 '가'는 'ik'인데 이 어근을 나타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行'자로 그 어근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일본어의 철자체계에서는 한자를 폐지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 같다.

한글 맞춤법에는 추상성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 우리말의 동사와 형용사에서는 순음 다음의 어간말 ɨ가 u로 발음되어서 ɨ를 가진 이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즉, '슬프다'는 '슬푸다'로 발음되는 것이 보통이며 [silpʰuko], [silpʰə] 등에서도 ɨ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슬푸'를 '슬프'로 표기한다는 것은 음운론적인 면에서 볼 때 퍽 추상적인 기저표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슬푸'보다는 추상적인 '슬프'가 보다 나은 표기법이라고 할 만한 근거가 있다. 다음을 보자.

(3) a. /silpʰɨ+ko/ '슬프고' /silpʰɨ+ə/ '슬퍼'
silpʰu+ko ɨ-원순화규칙 silpʰ+ə ɨ-삭제규칙
[silpʰuko] [silpʰə]

b. /silpʰu+ko/ /silpʰu+ə/
silpʰw+ə 활음형성 규칙
silpʰ+ə w-삭제 규칙[1]
[silpʰə]

위의 도출과정 (3a, b)가 모두 가능하지만, 만약 어간이 '슬푸'가 되면(3b의 경우) '슬퍼'의 도출과정이 (3a)보다 복잡해져서 어간 '슬푸'와의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가 없다. 반면 (3a)에서는 표면형 '슬퍼'가 독립적으로 동기화된 ɨ-삭제규칙에 의해 /silpʰɨ+ə/→[silpʰə]의 과정을 거쳤음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보다 추상적인 기저형 '슬프'쪽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한글 맞춤법은 적어도 음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다른 언어에서 보기 어려운 강점을 지니고 있다.

151—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문과
(접수 : 1977. 11. 15)

[1] w-삭제규칙의 독립적인 동기는 다음에서 볼 수 있다.
/ip#wən/ '입원'
ip#ən w-삭제규칙
[ipən]